

현대 한국어 /i/모음에 관한 음성학적 연구*

김민자

1 들어가기

현대 한국어 모음 중에서도 /i/모음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통일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는 음가를 설정하여 기술하기 어려운 모음이라는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모음과는 달리 /i/모음은 환경이나 연령(세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음가가 변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이 글에서는 현재 표준말인 서울말을 중심으로 /i/모음의 음가, 음가의 변동요인 및 환경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그러나 현재 서울 호박이 중에서도 순수한 서울말을 쓰는 경우는 아주 드물게 되었는데, 이는 고층의 발달과 지방인구의 서울전입으로 인한 서울 호박이의 숫적인 열세 및 지방방언에 의한 서울말의 변질 때문으로 보이며, 또한 안정된 세대라고 볼 수 있는 50-60대와 자라나는 젊은 세대와는 통사론적 형태론적 차이는 차치하고라도 음성학적인 면에서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특히 /i/모음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점을 밝혀내기 위한 방법으로 현장조사(field work)를 실

* 이 글은 필자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의 일부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시 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대상은 피조사자의 부모가 모두 서울 태생이며 피조사자 역시 서울에서 출생하여 교육(고졸이상)을 받고, 계속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의 순수한 서울말(표준말)을 쓰고 있다고 판단되는 60대의 남자 1명, 여자 1명, 50대 여자 1명을 피조사자(informant)로 택했고, 특히 세대간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서울에서 출생하여 계속해서 서울에서 살아온 대학생 4명(남자 2명, 여자 2명)과 중학생 남자 3명, 여자 2명을 골라 조사하였다.

조사에 사용한 자료는 /기/모음이 첫음절과 둘째 음절 이하에 오는 경우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낱말 200여개를 골랐다. 그리고 문장 안에서 즉 리듬에 따라 음가가 바뀔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 낱말이 들어가도록 짧은 글을 지어서 각각 두번씩 읽게하여 녹음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그러나 말하는 속도나 스타일에 따라서도 모음의 음가는 달라지게 되므로 보통 속도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식이 되도록 하였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원하는 낱말의 발음을 듣기위해 수수께끼식으로 질문(낱말)을 유도하거나 더욱 자연스러운 말씨에서의 발음을 듣기 위해 일상적인 이야기나 피조사자의 주변이야기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리듬 패턴 안에서 어떻게 음가가 변화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하여 녹음한 자료를 필자의 청각 판단에 의존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기본적인 판단의 기준은 D. Jones가 설정한 기본모음의 음가와 비교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실험기기 - 레링고 그래프(Laryngograph) - 를 이용하였다.

2 : 기/모음의 음가조사 결과

먼저 9명의 피조사자 중에서 안정된 세대에 속하는 50-60대의 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기존의 이론과 비교하면서 분석한 내용을 제시한다.

2. 1 /ʃ/모음의 음가

여러 학자(이 희승; 1950, 이 송녕; 1957, 허 응; 1965, 김 영송; 1959, 이 현복; 1971) 등이 이미 설정해 놓은 바와 같이 /ʃ/모음은 일정하게 한가지로만 발음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의 음으로 발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ʃ/모음이 여러 음가를 가지고 나타난다는 사실은 이 여러 음 모두를 몇 개의 음소로 잡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음소에서 실현된 변이음(allophone)으로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즉 각각의 음가를 가진 낱말이 최소 대립어를 형성한다면 이들 다른 음가는 별개의 음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번 조사에서 그러한 대립쌍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현복(1971, b)에서 최소 대립어로 제시한 "열(다){jə:l(da)}"와 "열(ten){jʌ:l}"에서 "ə:"와 "ʌ:"가 유일한 대립쌍이라고 보아서 별개의 음소로 설정하고 있으나, 단 하나의 경우만으로는 설정근거가 미약하다고 본다. 그리고 "열다"의 활용형 "열어서"는 다시 "열(ten)"을 발음할 때의 "ʌ:"로 환원되는 것이 조사중에 밝혀졌다. 그러므로 /ʃ/모음이 여러 음가를 갖게 되는 것을 한 음소의 변이음이라고 보고 이를 표기하는 기호의 문제를 먼저 살펴보자. /ʃ/모음을 표기하는데 사용되는 기호는 {ə, ɜ, ʌ, ɔ}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중 {ə, ɜ}는 큰 문제없이 받아들여지고 있고, 대부분은 {ə}로 쓰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ʌ}와 {ɔ}인데 같은 음을 표시하면서 별개의 기호를 사용

하고 있는 것은 어느 한쪽만을 습관적으로 써온 탓도 있지만, {ʌ}와 {ɔ}는 혀의 위치나 높이가 꼭 같으나 단지 입술 등굴임(원, 평)의 차이만이 있는 기본모음 1차 6변, 2차 6변이므로 /ɪ/를 각각 평손과 원손모음의 기호로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일부 원손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한 문희; 1979, 우메다 히로유키; 1982)가 있긴하나 /ɪ/모음을 발음할 때의 피조사자의 입모양을 관찰한 결과, 일견 입술이 등굴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원손모음은 입술을 등그렇게 오므리면서 내는 모음임), 그것은 입벌림에 지나지 않는 퍼진 입술의 모음, 즉 평손모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ɔ}와 {ʌ}중에서 {ʌ}로 표기해야 음성학적으로 올바르다고 할 수 있다.

2.2 음가 변동 요인

음가가 변화하는 환경이나 원인에 대한 기존의 견해들은 /ɪ/모음이 길게 날 경우에 {ə}나 {ɜ:}로 발음되고 짧게 날 때는 {ʌ}({ɔ})로 난다고 보는 견해(이 희승, 허웅)가 지배적이고, 긴장과 이완에 의해 음가가 변화한다는 이론(김영송)도 있다. 그러나 이 현복(1971, a, b)에서는 장단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강세가 함께 작용하여 /ɪ/모음이 여러 음가로 변이된다고 보았다. 이렇듯 다양한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한 결과를 제시한다.

2.2.1 50-60대의 피조사자들에게 준비한 자료를 읽게 하였을 때 "전화, 연구, 병원, 없다, 현대" 등과 같은 낱말에서 /ɪ/의 음가가 상당히 전진하여 발음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경우에 /ɪ/의 음가는 중앙모음 {ə}나 S, C, V (제 2차 기본 모음) 7변 {ɜ}의 높이에서 앞으로 약간 전진한 정도로서 상당히 중앙화하여 발음하고

있었다. 다시 {ə} 쪽으로 이렇게 음가가 전진 상승하는 낱말을 가려 뽑아 분석한 결과 /ʃ/가 들어 있는 음절이 다른 음절보다 강하고 길게 발음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대부분의 이론에서 단순히 길이가 길어질 때에 음가가 전진 상승한다는 이론보다는 강세가 있으면서 길이가 길어질 때에 그렇다는 이론이 옳다고 본다. 이렇게 강세가 있고 긴모음으로 나게 되어 음가가 전진 상승하는 경우는 /ʃ/모음이 첫째 음절에 올 때에 한하며, 둘째 음절 이하에 오는 /ʃ/는 그러한 변이를 한군데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둘째 음절 이하에서 나는 /ʃ/의 길이가 첫음절 길이보다 긴 경우에도 음가는 전진 상승하지 않고 발음되었다. 그러나 흔히들 {ə}로 네어야 할 곳을 거의 " "로 발음하는 때가 있는데, 이는 하류층의 말씨에서나 빠른 대화체의 말씨에서 두드러지나 표준 발음인 {ə}({ʌ})와는 구별된다. 또 한가지 제기되는 문제는 첫음절에서 {ə}({ʌ})와 같은 음가로 발음되었던 낱말이 첫음절에 오지 않고 다른 접두사나 다른 명사와 결합될 때 그 음가를 계속 유지하는지의 문제이다. 예를 들면 "없다(無)"의 /ʃ/음은 장음으로 약간의 강세를 수반하는 낱말로서 음가가 전진하여 {ə}로 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없다"와 결합한 "난데없다, 덧없다, 맛없다, 멋없다" 같은 낱말에서 "없다"의 음가는 단독으로 쓰였을 경우와 차이가 없었다. 여기서 "없다"가 활용 되어 "난데없이, 덧없이"로 변화하여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전화"에서도 첫음절이 {ə}로 나나 "공중전화"와 같이 복합어가 된 경우도 "전화"만이 단독으로 쓰였을 때와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없다" "전화"의 경우처럼 복합어를 형성한 경우 그 앞에 붙은 낱말과의 휴지 (pause)를 두어서 말했을 경우는 본래의 음가대로 전진 상승되어 발음되나, 계속적으로 빠르게 말했을 경우는 약간 하

강 후퇴하는 쪽으로 기우는 경향은 있는듯 하다. 그러나 "끝없다" "부질없다" 같은 낱말에서 "없-" 의 장음이 없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 견해(이 기문 ; 1972)가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부질없다"의 활용형 "부질없이"에서는 다시 {ㄷ}음가로 환원됨을 들을 수 있었다.

다음은 조사에 사용했던 낱말 중에서 강세가 있고 긴모음으로 나서 음가가 변이된 것중 몇가지만 열거한다.

"거등, 거만하다, 거지, 건강, 견본, 견학, 건설적, 더럽다,
면담, 면장, 벌(蜂), 서민, 성격, 언제, 언다, 없다, 연구,
연설, 전화, 전기, 정돈, 처음, 편지, 헌법, 헌금, 현대, 힘권"

2. 2. 2 다음으로 /기/모음 중에서 흔히 짧게 나는 것으로 보는 경우인데, 조사한 바로는 짧게 나면서 강하게 발음되었다. 이 경우의 /기/음가는 S, C, V 6번 {△}와 흡사하게 발음되거나 그보다 약간 높은 후설모음으로 난다. 어떤 경우는 6번 {△}모음보다 더 뒷쪽에서 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발음은 서울말에서는 흔히 들을 수 있으나 경상방언에서는 이런 음가를 갖지않고 약간 전진한 쪽으로 내고 있다.

이러한 경우의 낱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음절에 오는 경우

거꾸로, 억(億), 견달, 결과, 서두르다, 열(十), 혁신, 먹
이, 정부, 병어리, 선수(先手), 적극성, 꺾다, 석사, 얼굴,
허겁 지겁, 언론, 떡, 엇, 정신, 결정.

@둘째 음절이하에 오는 경우

가격, 다섯, 목적, 증거, 친정, 진정, 반성, 까먹다, 단결, 공
격, 공석.

2.2.3 또 하나의 /ɪ/의 변이음으로서는 강세가 없으면서 짧게 나는 부류가 있다. 이는 강세가 있고 길게 날때의 {ə}({ʌ})보다 낮고 후퇴한 모음, 즉 반열림보다 다소 높은 {ə-} 정도의 중앙모음으로서 "어머니, 세번, 근번" 같은 낱말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에 속하는 예를 더 들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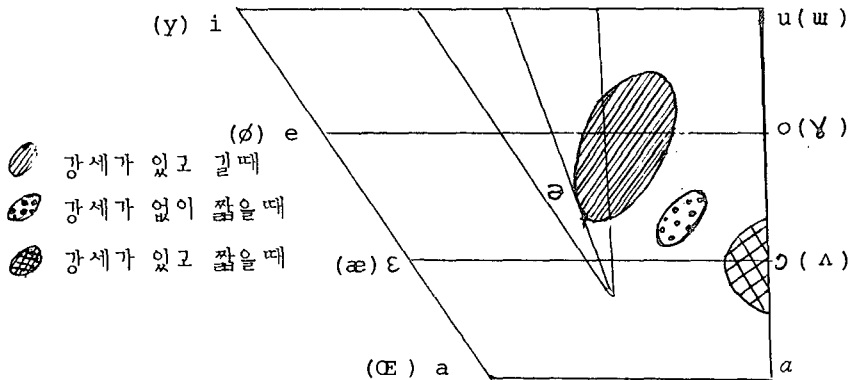
①첫째 음절에 오는 경우

결혼, 머리, 머슴, 뱀, 변영, 어머니, 덤덤하다, 어린이, 젊은이, 버리다, 섭섭하다, 전개되다, 너비, 머룎, 선발대.

②둘째 음절이후에 오는 경우

가설, 무덤, 사법, 자전거, 망명, 부정하다, 자선사업, 당선, 한벌, 다섯.

이상에서 /ɪ/모음이 변이하게 되는 변동요인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 이렇게 세 경우로 나뉘어 발음되는 /ɪ/모음의 변이영역을 모음사각도 상에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2.2.4 또한 앞뒤에 오는 소리의 영향으로 음가가 변하는 경우가 있다. /j/모음은 선행하는 음이 반모음 /j/나 치조 및 경구개 자음 일때 /j/의 음가는 모두 전진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서 강세가 있고 발음 될때의 {ə}음가로 난다는 설(이현복 1971 ;a,b)이 있는바 조사결과 사실임이 확인되었다(예 ;연구, 견학, 견본, 병원, 등)

3. 젊은 층에 대한 음가조사결과

50-60대의 안정된 세대의 피조사자에게 사용했던 똑같은 자료를 중학생 5명 대학생 4명에도 그대로 실시하였다. 젊은 세대중에서도 자랑나는 중학생들 -언어형성기를 막 지났거나 형성하고 있는- 과 언어습관이 굳어졌다고 생각되는 대학생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중학생과 대학생으로 나누어 보았으나 큰 차이점이 없었으므로 한데 묶어 젊은 층이 갖는 특성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앞에서 분석한 50-60대의 /j/모음과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안정된 세대가 자연스럽게 내고 있는 강세가 있고 길게 날때의 {ə}음가를 전혀 들어볼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젊은 세대는 60대가 발음하는 {ə}나 {ʌ}에 가까운 음가를 변이음으로 갖지 않고 그대신 전부 {ʌ}로 내고 있어서 안정된 세대의 강세가 있으면서 짧게 내는 경우와 구별이 되지 않는다. 즉 젊은층에서는 안정된 세대가 {ə} ({ʌ})와 {ʌ}로 분화하여 발음하는 것을 모두 강하고 짧게 {ʌ}로 내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안정된 세대가 강세가 없이 짧게 발음하는 소리 즉 "어머니" 같은 낱말에서와 같이 중양모음에서 약간 후퇴한 /j/모음은 젊은 층도 거의 같게 발음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젊은 세대의 /j/모음은

{ ʌ }와 { ə - } 둘로 변이되는 셈이다 또한 환경적 요인으로 /j/가 선행할 때 음가가 전진하는 현상 역시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하여 강세와 더불어 길이에 의하여 뜻구별을 하게되는 "거리 (distance); 거리(street), 벌(bee); 벌(punishment)" 과 같은 쌍은 앞 뒤의 문맥없이 구별을 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조사도중 필자가 안정된 세대의 표준 발음 { ə }를 발음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느냐는 질문에 피조사자는 그런 식의 발음은 사투리라고 단정하였다. 이런점을 볼때 { ə }로 발음되는 것이 /ʃ/의 변이음이며 표준 발음이라는 것조차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맺 음 말

이상에서 간단히 현대 서울 말을 중심으로 /ʃ/모음의 음가와 음가 변동요인을 현장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살펴보았다.

즉 /ʃ/모음이 여러 음가를 지니는 것은 한 음소의 변이음이라고 볼 수 있고, 이의 변동요인으로 작용하는 장단과 강세에서 주된 요인은 장단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한국어에서 모음이 길어지면 거기에 강세가 얹혀지는 일반적 현상과 통할 수 있는 것이라 보인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세대간의 발음 차이인데 이는 그대로 착시할 수 많은 없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시급한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김 선 기 (1971), *Phonetics of Korean*, 대한고과서 주식회사, 서울

- 김영송(1959), 중설모음 '어'의 음가 -국어의 x 선 실험보고-, 국어
국문학 통권 1호, 부산대학교
- 우메다 히로유키(1982), 현대 서울말에 있어서의 모음의 통시적 변화
서울대 어학연구소 45회 어학세미나 발표부분
- 이거문(1972), 국어사 개설 (개정판), 랍출판사, 서울
- 이송녕(1954), 국어사 개설, 진문사, 서울
- 이현복(1971, a), 현대 서울말의 모음음가, 어학연구, 7권 1호
—— (1971, b), 서울말의 모음 체계, 어학연구, 7권 2호
- 이희승(1950), 국어학 개설 민중서관 서울
- 한문희(1979), 실험 음성학적인 면에서 본 현대 한국어 모음체계
한글 제166호 한글학회
- 허웅(1965), 국어 음운학(개정판) 정음사 서울
- Jones, D. (1960), *An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9th ed., W. Heffer & Sons Ltd., Cambridge

<<서울대 대학원 언어학과 >>

* 이 논문은 인쇄의 편의상 음성표시인 대괄호 대신에 { }를 사용함.